조선 왕실의 재정 파탄은 피할 수 없었나?

김 문 식(단국대 사학과)

조영준 교수의 『조선 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은 규장각에 소장된 방대한 분량의 회계 장부를 분석하여, 왕실재정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밝히고 왕실재정이 동시대의 서울상업에 미쳤던 영향을 정리한 저술이다.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자료의 분석과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규장각에서 '근대정부기록류'로 분류하는 자료 가운데 내수사 및 각 궁의 회계장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기왕의 자료 해제에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며, 회계장부 및 고문서의 체제와 시전 상인의 물품이 내수사나 궁을 거쳐 왕실로 조달되는 경로를 밝히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비슷한 자료를 다루는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장점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왕실재정의 운영 실태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동시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대상 시기가 한정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19세기 이후 왕실재정은 적자 내지는 파탄 현상을 보였고, 왕실에서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고종, 순종 대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졌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명확하게 듣고자 한다.

1. 현재 남아있는 자료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왕실재정의 운영 추이가 궁금하다. 필자가 <표3-1>에서 제시한 내수사 및 궁의 회계장부를 보면 1792년부터 1907년까지의 자료가 남아있어, 18세기 말 이후의 추세를 추적할 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조선 왕실의 재정 적자는 18세기부터 나타난 현상인가? 아니면 그 이후의 현상인가? 본문에 "왕실재정의 궁핍화로 인한 위기가 심화되는 1880년대에 들어서면"(212면)이란 표현이 보이는데, 조선 정부가 서양 국가들과 본격적으로 교섭하기 시작한 1880년대에 재정 위기가 심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2. 필자는 수진궁의 경우 고종 대에 면세결총이 감소하고, 갑오승총에 의해 무토의 호조 환수가 이뤄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하였다. 수진궁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수입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내입(內入)으로 표현되는 왕실로의 물자 조달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가 말한 대로 1866년부터 수진궁에서 제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이때의 내입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당시 시전상인들은 수진궁 궁속의 남용, 착복, 횡령으로 보았는데 이는 타당한 것인가? 필자는 '조선 왕실은 재정 위기를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295면)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3. 대원군과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필자는 대원군의 궁방전 개혁은 정부재정의 건실화에 있었으므로, 왕실재정에서는 내탕의 재원 축소로 나타났다고 했다(271면). 또한 일본의 영향력이 작용한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 호조나 선혜청과 같은 정부재정의 영역에서 공인들에게 미하금을 지급하여 '근대적' 재정개혁의 기초를 닦았고, 1907년 일본인에 의한 제실 채무의 정리는 시전 상인들이 요청한 미하금의 3할을 '애휼금(愛恤金)'이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대원군이나 일본의 조치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조선 왕실이나 대한제국 황실이 진즉에 처리해야 했던 것을 그들이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궁금하다.